

암 투병 중인 아버지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폐암 말기 투병 중에 이루어진 면담을 중심으로

김랑¹ · 문혁준²

¹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수료, ²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애이야기를 통해 탐구하였다.

방법 탐구는 생애사(life history) 연구를 통해 연구되었는데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생애사연구는 노인들의 과거 삶의 과정에서의 구체적 선택과 행동이 현재의 삶의 질 및 삶에 대한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버지와의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면접, 심층면담, 녹취 자료, 자전적 저널, 사진, SNS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연구참여자의 건강이 허락되는 시점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결과 생애이야기를 통해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시간 순서상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며 총 9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다. 1)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 2)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의 시작, 3)결혼과 자녀출산, 4)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거나 슬펐던 순간들, 5)자녀를 키우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들, 6)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점, 7)아버지 역할에 대한 생각, 8)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 아동 ·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은유법으로 표현한다면, 9)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결론 면담에서 아버지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걸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생애이야기를 통해 한 남자로서의 생애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주제어 질적연구, 생애사, 아버지 삶, 폐암 말기 환자

논문접수: 2022년 7월 22일, 논문심사: 2022년 9월 29일, 게재승인: 2022년 10월 24일

Corresponding to 문혁준, mhyukj@catholic.ac.kr

I . 서론

어서 오라, 사랑스럽고도 달콤한 죽음이여,
고요하게 다가오면서,
낮에도, 밤에도, 모두에게, 각자에게,
더 빨리, 아니면 더 늦게 다가오면서,
이 세상 곳곳에 물결쳐라, 우아한 죽음이여.
고마워라, 끝없는 우주여.
삶과 기쁨을 위해, 진기한 사물과 앓을 위해,
그리고 사랑, 달콤한 사랑을 위해
다만 찬미하라! 찬미하라! 찬미하라!
차갑게 껴안는 죽음의 굳게 감긴 두 팔을 위해.
- 휠트 휘트먼, 「풀잎」, 1892 -

2019년 7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다인실 병실 끄트머리 침상에 입원중이었다. 아버지는 한 달 전쯤 건강검진을 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이곳 대학병원으로 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담당의사 소견으로는 아버지는 폐암 말기 상태로 아버지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뿐이라고 하였다. 2녀 1남 중 장녀인 나는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4학기에 재학중이었고 정성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나는 아버지와 병실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될 터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아버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자녀인 내게도 이보다 값진 유산은 없으리라 여겨

졌다. 아버지의 유년 시기부터 노인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궤적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 여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언어로 아버지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연구자에게는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풍부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Webster L., & Mertova P., 2007, 박순용 역, 2017).

생애사연구(life history research)는 최근에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한 장르로서 역사학, 발달심리학, 교육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생애사연구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여 명확하게 개념화하기는 어렵다. 학자들 중에는 생애사를 어느 개인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찰을 중심으로 한 삶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Hatch, 1995). 조홍식 외(2011)는 생애사연구를 삶의 주체인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전기 형식의 연구가 다양하고 용어들이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반영하나 모든 형식들은 한 인생의 역사를 구성하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생애사연구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현상을 탐구한다(Goodson, 1992). 생애사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창문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여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역설적으로 공공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다’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김영천, 한광웅, 2012). 생애사연구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교육현상의 본질, 혹은 구조를 시간의 축에 따라 탐구하여 이야기체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는 교육현상의 본질을 공간의 축보다 시간의 축에 따라 탐구한다. 즉 생애사연구는 시간을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교육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생애사연구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일차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로 기술하므로 생애사연구는 참여자와 구술면담에 의해 삶의 이야기를 탐색한다.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궁극적으로 소통이 되었을 때 온전한 암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생애사연구는 참여적 패러다임(participatory paradigm)에 속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생애사자료는 생애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수집하므로 삶의 과정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며 수집되는 자료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될 경우 노인의 현재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최근 노인의 삶의 질 및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생애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애사 접근방법은 과거 삶의 과정에서의 구체적 선택과 행동이 노인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한경혜, 2004).

이와 관련된 국내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완화돌봄을 받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달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말기암 환자가 특별한 삶의 사건 속의 문제와 관련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치유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정이, 소향숙(2019)도 7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면담을 통해 말기암 환자들은 죽음에 임박하여 분노와 부정으로 심한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었다.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수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관한 곽수영, 이병숙(2013)의 연구에 의하면,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편안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를 받아들이면서 평안함과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한편,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에 거부감이 공존하는 마음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박세원, 김영순(2016)은 한 노년 여성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애이야기를 통해 탐구하였는데 생애이야기를 통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풀어내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고, 점차 자신의 삶을 실존의 언어로 끌어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생애사이야기를 통한 구술면담에 참여하면서 살아온 경험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말기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죽음에 임박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삶의 경험, 육아를 위해 퇴직한 아버지들의 삶을 주제로 한 연구에 그치고 있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생애사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애사연구는 삶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자리 잡은 맥락에서 해석한다(김영천, 한광웅, 2012). 이러한 면에서 현재 폐암 진단을 받고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지나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간의 교섭(Goodson & Sikes, 2001)이 될 수 있다. 또한 Cole과 Knowles(2001)는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친밀하고 진솔한 관계는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기제이며 연구자와 참여자 관계의 상호성은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낳는다고 하였는데 연구자인 딸과 연구참여자인 아버지가 부녀 관계라는 점, 환자와 가족 중에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과는 달리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연구자인 딸이 간호하면서 생애이야기 면담을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한평생을 가족과 자녀를 돌본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아버지의 삶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돋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탐구였다. 연구자인 딸은 아버지의 생애이야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아버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는 자신의 생애이야기 대회를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물음을 생성했다.

첫째,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아버지는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는가?

셋째, 아버지는 딸과 함께 이루어진 생애이야기 대화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넷째, 아버지의 생애이야기 체험은 아버지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이자 연구참여자인 나와 연구자의 부모인 아버지가 연구참여자가 되어 수행되었다. 나는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중년 여성이며 원가족에서는 2녀 1남 중 장녀이다. 연구자인 나는 1977년생으로 2녀 1남 중 장녀로 현재 기혼 여성이며 1971년생 남편과 중학교 3학년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2000년 당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부채의 일부를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좋았던 관계가 나빠진 채로 2001년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고 친정을 도우며 살아왔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시한부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아버지를 돌보면서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연구를 통해 아버지와의 소원했던 관계를 풀고 아버지의 생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참여하는 과정은 아버지를 더 깊게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병에 걸려 죽음으로 향해가는 아버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에 대한 재해석 및 아버지를 잘 떠나보낼 수 있는 이별의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가족학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경험과 의미를 발견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인 나의 아버지(67세)는 폐암 말기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1951년에 태어났고 4남 1녀 중 넷째로 전라남도 강진

군 작천면 군자리에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장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는 형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농협에 입사하고 1976년도에 결혼하여 1977년도에 첫째 딸 출산, 1979년도에 둘째 딸 출산, 1982년도에 셋째 아들을 출산하여 슬하에 2녀 1남을 두었다. 최근까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매일 꾸준히 달리기, 수영 등의 운동을 하고 삶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2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을 받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암 말기, 앞으로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인천 소재의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차 항암을 받은 상태로 중년의 딸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며 연구자인 딸이 제안한 생애이야기 면담을 흔쾌히 수락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아버지와의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면접, 심층면담, 녹취 자료, 자전적 저널, 사진, SNS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연구참여자의 건강이 혀락되는 시점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장소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가급적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주력하여 아버지의 경험세계를 이해하고자 그 삶에 깊숙이 빠져들고자 하면서도, 아버지의 경험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다. 구술면담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김영천, 한광웅, 2002)이기 때문이다. 면담은 1회씩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였고 아버지가 시간 순서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환경과 경험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을 전사한 자료는 A4용지 약 20매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면담 녹취자료, 연구참여자의

저널, 연구참여자와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전사, 주제별 약호화와 분류, 주제 및 의미 생성 작업의 세 가지 과정(김영천, 2006)을 거쳐 분석하였다. 면담 전 사자료, 연구참여자의 저널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상적 범주에 따라 읽으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고, 자료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 2인과 함께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의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에 대한 타당성 및 진실성 확보

김영천, 한광웅(2012)에 의하면 ‘참여적 타당도는 (Participatory Validity)’는 생애사연구에 적합한 타당도 개념으로 ‘참여적 타당도’는 생애사연구의 참여적 성격을 반영한다.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균등한 관계는 참여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참여자의 생애사연구의 적극적인 참여는 연구 과정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생애사연구는 자료수집부터 해석, 그리고 성찰까지 연구자와 참여자가 협동하여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Munro(1998)는 연구자는 참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참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체로 담담하게 구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정성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면서 3차례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인 2019년 10월 15일 이후부터는 병문안 상황에서 수시로 면접, 관찰, 참여자의 저널, SNS 대화 내용 등의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정성적연구방법론을 강의하는 담당교수와 3인의 박사과정생들과 함께 아동가족학 관점에서 자료수집과 해석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해 면담내용에 대한 자료 분석 및 글쓰기를 마친 뒤 연구참여자에게 결과의 진실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검토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면담의 주된 내용들이 가족사(史)와 관련이 있으므로 면담 내용에 대하여 배우자 및 아버지의 형제와 조카 등의 친척들에게 의뢰하여 분석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시작 단계에서부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아버지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 야구모자를 쓰고 환자복을 입은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이다. 그래도 딸이 왔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반가운 웃음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보잘 것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의 딸이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주제로 연구를 한다는 것에 들떠 있었다. 아버지는 요즘 부쩍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그 바람을 들어 주고 싶었지만 현재 아버지의 상태는 전라남도까지 긴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나 상황이 되지 못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였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지역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역 유지’로 표현하면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할아버지가 ‘단명’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으로는 늘 농사일과 집안일로 바쁜 할머니를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발적으로 도와주면서 할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고마워하였고 이웃들의 칭찬을 받았던 일 등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막둥이 네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면서 고이고 이 모아두었던 용돈을 아버지에게 주었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고 이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아버지 : 내 아버지는 4남 1녀 중에서 장손이었어.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허다했지만은 할머니(어머니)가 두 분이셨어. 고모할머니까지는 둘째 할머니한테 태어났어.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외로우셨다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만주로 장사하러 다니면서 장손이면서 동네 이장을 맡으셔서 동네 유지였는데 청주 김씨를 대표하는 유명한 분이셨어. 그런데 이 분이 술을 좋아해서 작천동 군자리 술 먹는 삼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 매일 농사일 끝나면 주막으로 다니셔서 엄마하고 많이 싸우긴 했지. 그렇게 사시다가 해소병(기침병)으로 50대에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평생 농사지으면서 우리 4형제를 키우시느라고 열심히 사셨는데 단명을 하셨어. 아버지가 한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선산에 모시면서 그때 내가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와서 모셨던 기억이 생생해. 아버지하고 관계는 매일 그



[사진 1]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사진 2] 아버지 고향집 외양간과 짜릿문

렇게 농사짓고 그러다가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일 거들고...

어머니는 해남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기독교 신자였어. 그래서 나도 할머니한테 큰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접하게 됐지. 지금도 내가 잊히지 않는 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까지 어머니 집안일을 도와드리려고 설거지를 했어. 시골에 뭐 부엌이라도 있나? 재래식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어머니 설거지를 도와 드려서 어머니가 항상 고마워했고 어머니가 만날 밭에 가서 일하고 오시면 내가 물 떠드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 일을 잘 도와준다고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했어.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눈물) 어머니 그때 나이가 쉰다섯인가 그랬는데, 그때 큰 형님이 취직되고 그러면서 서울 마포로 모시게 되지. 거기서 어머니가 2-3년 사시다가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그때 내가 농협에 취직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가족 중에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3일간 휴가를 내고 주야로 간병을 하게 돼. 어머니 마지막 입종하시던 날, 형들한테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체신부 다니는 큰 형님도 전화 불통,

둘째 형은 월남 백마부대로 돈 벌러 갔지, 셋째 형은 그때 세계물산에서 일할 때인데 골프장에 들어가 있었어. 지금은 시절이 좋아서 핸드폰 있어서 연락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골프장 한번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임종을 나하고 고모만 지켜봤어(눈물).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어머니가 병원 침대 밑에서 용돈을 꺼내 가지고 나한테 주셨어. 형님들한테 받은 용돈을 모아놓으신 거였는데 20만원 정도였어.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은 다 팬찮은데, 막둥이 네가 마음에 걸리신다고(눈물). 그러면서 이제 임종을 하셨어. 이걸 잊을 수가 없어.

(면담, 2019년 10월 15일)



[사진 3]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산소에서

2.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의 시작

아버지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예뻐하고 사랑해주었던 선생님을 떠올리며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초등학교 시절 글짓기로 상을 탔던 일화를 자랑스러운 듯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는 중학교로 진학한 다음부터는 ‘이때부터 삶이 전쟁’ 이었다고 하면서 삼십리 길의 먼 통학길, 짚주린 배를 물로 채워가며 방과 후 연습을 해야 했던 배구, 마라톤 선수 시절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로 곧장 진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거들며 쉬고 있었는데 셋째 형 덕분에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서울로 상경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에게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농협에 수석으로 입사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동네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장면을 ‘멋지게’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를 ‘황금기’라고 표현할 만큼 아버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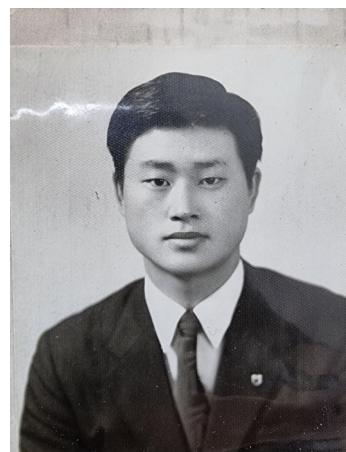
아버지 :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김복순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가 면장인데다가 지역에서 청주 김씨 가 워낙 유명해서 군자리 살다가 엊그제 죽은 사촌 동생하고 나하고 그때 당시 같은 반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때 김복순 그 선생님이 지금도 눈앞에 여쁜거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랬어. 내가 재주가 있었는지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군내 시상대에서 군수 상장을 탔어. 주제가 어머니인가 그랬어.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

이제 성전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 삼십리 길을 걸어서 다녔는데 비가 오고 넘치면 아버지가 저쪽에서 나를 데리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렇게 졸업을 하고 다른 형들은 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나는 집에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쉬고 있었어. 그런데 셋째형이 세계물산에 들어가

면서 서울 선린상고로 나를 입학시켜 줘서 중간에 편입을 하게 돼. 상고는 보통 졸업하기 6개월 전부터 취업을 하는데 나는 아주 과감하게 농협에 응시를 하게 돼. 농협에 4명이 입사를 했는데 내가 수석으로 입사를 하게 돼. 그때 동아일보 사회면에도 그 기사가 나왔어. 선린상고를 들어가게 해준 게 바로 셋째 형이야.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잊히지 않는 게 7월인가, 8월인가 취업을 하고 학교를 안 가도 됐어. 시골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저기 길모퉁이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오더라고. 나랑 아버지랑 눈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보가 온 거야. 축 합격, 농협! 그래서 아버지가 (웃음) 일하시다 말고 동네 방송을 했어. 동네 여러분 우리 막동이가 (눈물) 농협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바로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치를 하고 나는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하고(눈물, 침묵).... 그런 기억들이 나.

첫 출발은 정말 셋째 형 덕분에 멋지게 시작했지.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다고 셋째 형이 무교동에 있는 유명한 양복점에 가서 취직기념으로 양복을 맞춰 주더라고(눈물). 엊그저께 형님한테 그 기억이 평생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문자로 연락을 했지. 그렇게 첫 사회생활 출발을 잘했지. 고양군 농협에서 그때 사회생활을 멋지게 시작했어. 고양군에서 멋지게 출발했어.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는데, 그 젊은 시절에...

(면담, 2019년 10월 15일)



[사진 4] 농협에 입사했을 때 아버지

3. 결혼과 자녀 출산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현재의 상황 때문인지 결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첫째 장녀 출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였다. 첫째 딸이 태어났던 1977년도에는 ‘생활도 부유했고 걱정도 없었다’라고 하였고 둘째, 셋째가 태어났을 당시의 아버지가 처한 상황이나 이름을 지어주던 과정 등을 이야기하였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아버지는 첫째 딸의 대학 졸업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첫째 딸의 박사과정 입학 소식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며 ‘너무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하면서 기뻤던 순간으로 꼽았다. 반면,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는 ‘졸업식도 못 가보고 등록금도 못 해줬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알아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 소식을 전해줬을 때 너무 뿌듯했

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이 자식을 키우면서 기뻤던 순간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가족 모두가 면회를 갔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이 ‘인생에 황금기’였으며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하였다.

아버지 : 너희 삼 형제 태어났을 때 그 추억도 새록새록 나는 게, 너는 그때 농협 재직 중이라 부족할 것도 없고 제일 첫째기 때문에 아이도 팔팔하고 직장도 튼튼하고 걱정이 없던 시절이었어. 지금도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오토바이에 너를 태워서 서삼릉 골프장에 데리고 가서 골프공 주우면서 놀았던 것, 강원도로 놀러 다닌 기억들, 저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눈물)...너 태어났을 때는 정말 생활도 부유했고 걱정이 없었어.

고양군 농협에서 내가 광주군 농협으로 인사이동을 받게 돼.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자취를 하



[사진 5] 결혼



[사진 6] 첫째 딸 1세 때

면서 토요일에만 집에 왔어. 주말 부부를 한 거지. 그래서 둘째 낳는 걸 못 보고 주말에 와서 본 기억이 나. 그리고 셋째 역시 그때 광주에서 근무할 때 라서 밤 열 한시인가 신촌 무슨 병원이라고 연락이 와서 고속버스 타고 가서 봤지. 첫째, 둘째들 이름은 옥편 보고 내가 지었지만, 막내는 아들이라고 형님들한테 전화를 하니, 돌림자로 지어야 한다고 작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왔어.

너희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였어. 졸업할 때 그때 우리 식구들 다 가서 사진 찍고 그때 당시 김서방이(현재 연구자의 남편)랑 다 같이 식당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아. 그때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어. 부모인 나는 환경이 열악해서 대학 캠퍼스 구경도 못 했는데 그때 대학 캠퍼스의 신선함과 학사모 쓴 모습이 나무도 신기하고 대단했단다(울먹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네가 박사과정을 밟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렸어. 셋째 형이 제일 반가워했어. 물론 자기 자식들은 다 공부했지만, 우리 집안에 여자 박사가 나온다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셔. 엊그제께 요즘 강사들 취업난에 고생하는데 그런 걱정도 해 주시고, 그 순간이 가장 기뻤어.

너는 성격이 팔팔하고 사내다운 데가 있어 이름을 화랑에서 영감을 얻어 ‘랑’이라 지었는데 이름에 걸맞게 잘 자라주었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너에게 한없는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둘째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개 학교 졸업식 때도 못 가보고 혼자 아르바이트 하고, 너만큼 넉넉하게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항상 미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해줬을 때 가슴이 너무 뿌듯했어. 그때도 가족들한테 소식을 다 들렸어.

그 다음 막내가 파주에서 군 복무할 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면회 갔을 때가 생각나. 옛날 내가 군 생활하던 기억도 나고 막내가 언제 저렇게 성

장해서 늠름한 대학의 육군 병사가 되어 전선을 지키게 됐나 싶고 그 모습이 대견했어. 김서방이랑 민지(손녀)랑 다 같이 갔던 그때가 가장 기뻤어. 가족들과의 전체 나들이가 별로 없었는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기뻤어. 그 시절이 그래도 인생에서 황금기였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가 가장 기뻤고 막내가 제대하고 나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취업했다고 했을 때가 가장 기뻤다. 애들 셋이 다 장성해서 각자의 뜻을 다 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가장 기쁜 순간들이었어.

(면담, 2019년 10월 15일, 11월 12일)

4.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거나 슬펐던 순간들

아버지는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거나 슬펐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렸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대학을 진학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대학 등록금을 주지 못하고 뒷바라지를 해 주지 못한 것을 지금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결혼까지 했음에도 ‘죽는 날까지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하면서 미안해하고 있었다.

아버지 : 힘들거나 슬펐던 순간은(목이 메어서 목소리 가다듬고) 둘째하고 셋째(눈물, 목이 메임)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부터 내가 뒷바라지 하나도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침묵) 둘째 미국에서 결혼할 때도 못 챙기고....하~

막내도 여러 가지로 챙겨주지 못했어. 지금도 둘째, 셋째만 생각하면...죽는 날까지 해 줄걸 다 해주고 가야 하는데...가장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면담, 2019년 10월 15일)

5.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들

아버지는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으로 지난여름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미국에서 사는

둘째 딸이 와서 첫째 딸과 함께 아버지를 퇴원시켜준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 순간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만이 바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생애이야기가 첫째 딸 연구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 (목소리 가다듬고) 지난여름에 내가 퇴원하던 날 두 자매가 나란히(눈물) 병원 왔을 때.... 병원 와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태워다 주던 날, 그 때가 가장 좋았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아~지금도 바람이 있다면, 아무 욕심도 없고...너희들 다정하게 사는 모습 보는 거야. 둘째가 미국에서 비행기값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 멀리서 와 가지고 너희 둘이 병원에 같이 와서....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늘 마음에 안정을 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보잘 것 없는 내 인생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눈물) 네 연구 자료에 조금이라도 (눈물) 보탬이 된다면 보람이 있고 기쁘지.

(면담, 2019년 10월 15일, 11월 22일)

6.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점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둘째 딸과의 다툼에서 뺨을 때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둘째 딸에게 그 일이 ‘한이 됐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자신이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했으면 됐을 것’을 그러지 못한 것이 늘 ‘죄스럽고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였다. 가장의 역할을 다 하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가부장적인 면이 강했던 것 같은데 노인이 되어 암에 걸린 지금, 아버지는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와 손녀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다면 남은 인생을 가족을 위해 살고 싶고 자신이 가족들을 떠

났을 때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 이 외롭고 어려운 투병을 견디고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 : 그때 사업이 실패하면서 ○○아파트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고 ○○동 지하실에서 살 때 둘째가 막 대들어서 뺨을 한 대 때린 적이 있어. 그래서(침묵) 그것이 제 깐에는 한이 됐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 지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들이 었어.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했으면 됐을 것을....젊은 시절에 괜히 객기 부리고 교만 떨고 특히 너희 엄마에게 좀 더 관대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지울 수 없는 평생의 한을 준 것 같아 늘 죄스럽고, 미안하고 후회되고....

평생 살아오면서 너희들에게 좋은 추억 많이 못 만들어 주어서 그게 한으로 남아 있고, 특히 외손녀에게 더욱 더 그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건강이 회복된다면 여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을 마감하고 떠났을 때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 이 외로운 병마와의 투쟁을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울먹임).

(면담, 2019년 10월 15일, 11월 22일)

7. 아버지 역할에 대한 생각

아버지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는 ‘객기와 교만과 아집’으로 권한을 내세우는 가장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인 줄로만 알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변해가면서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갈등을 빚게 마련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 : 나는 늘 내가 항상 좋은 아버지인 줄로만 알았어.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아집이었다는 것을 늦은 나이에 감지해야만 했어.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가정을 다스리고 애들을 보살펴야 했는데, 짊었을 땐 짊은 혈기와 객기로 온갖 교만과 아집으로 너희들에게 좋은 추억과 아기자기한 일상들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못내 아쉬워. 아버지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항상 비례하는 것이야. 애들의 사고와 이념과 생각은 항상 저만치 앞서가는데 대부분의 가장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때론 의견 충돌이 일고 갈등을 빚어. 그래서 아버지들이 변해야돼.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투병하면서, 이젠 천덕꾸러기인 집 덩어리로(울먹임) 변해버린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슬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오늘에 감사하며 삶의 자취를 조금이나마 남기고 가려고 오늘도 무던히 애쓰고 있단다. 소원이 있다면 완쾌되는 날, 사회복귀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우애롭게 지내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야. 그날을 기억하며 모두 모두 건강해다오.

(면담, 2019년 11월 12일)

8.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 아동 ·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은유법으로 표현한다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아버지는 아동 · 청소년기를 生=生, 청년기를 노여움과 기쁨=勞, 喜, 중년기를 기쁨과 즐거움=哀, 樂, 노년기를 = 病, 死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인생은 ‘유수’와도 같고 ‘종착지’가 무엇이기에 이리도 ‘아등바등대며 앞만 보고 살아온 것이었던가’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고 입원을 하고 수차례의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고 인생 전체를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들어서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신의 영역’이라고 하면서도 신이 ‘병도 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아버지 : 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는 유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삶, 화살 같은 바로 그 자체였다. 돌 아보건대, 별것도 아닌 그 인생, 삶을 그렇게 아등바등대며 앞만 보고 살아온 그 자체는 무엇이며, 그 종착지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울먹임)

무엇을 향해,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던가! 자서전 같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순간, 감개무량하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들이여 후회 없이 살자. 부끄럼 없이 살자. 여한 없이 살자.

(저널, 2019년 11월 20일)

가. 아동 · 청소년기=生

아버지 :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고 막내로 태어난 소년은 전남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시골에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생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절친했던 사촌 형과 일어나면 거의 기계처럼 붙어 다니면서 소깔을 베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연탄을 빼지 않던 그때는 땔감나무를 해 날라야 했던 즈음, 아무 욕심도, 꿈도, 희망도 없던 시골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했던 보통 소년 그 자체였다.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 늘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엌 설거지를 도맡아했던, 그 아련한 추억들이 아련하고... 보고싶다, 엄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내에는 중학교가 없어 이웃 성전면으로 중학교를 진학해야 했던 삶은 이때부터 전쟁, 그 자체였다. 30리도 넘는 험한 산길을 매일 걸어 다니면서 영어 단어를 외워야 했던, 남들보다 유독 키가 커서 마라톤 선수로, 배구 선수로 뛰기도 했었다. 친구들아 다 보고 싶구나(울먹임). 수업이 끝난 후 집에도 못 가고 고풀 배를 움켜쥐고 배구 연습에 전념해야했던 그래서 산속을 걸으며 귀갓길에 무, 고구마를 서리해서 멱다가 주인에게 들켜 혼나고 했던 소년이었지. 종진, 은구, 광자, 길순... 모두 보고 싶구나!(울면서 목이 메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시냇물이 가득 차서 개울물 이쪽에서 집 있는 저쪽으로 건너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노라면 어느새 엄마가 옆에 와서 집에 데려가곤 했던 해맑은 소년이었어. 유년기는 그렇게 흘러갔다.

(면담, 2019년 11월 22일)

나. 청년기=노여움과 기쁨 勞, 喜

아버지 :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모님 농사일을 거들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휴학하고 있던 중, 첫째, 셋째 형의 도움을 받아 서울 선린상고에 편입을 하게 되는 기회가 찾아왔다. 비록 야간 2부였지만 서울이 좋았고 행복했다. 오후 5시까지 학교를 가기 전까진, 삼양동 자취집에서 집 안 청소, 빨래, 연탄 갈기 등을 했고 남는 시간엔 학업에 매달리며 열심히 공부했다. 다행히 영어를 잘해 고3 10월에 치러진 농협 공채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해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막등이(울먹임) 은행 들어갔다고 돼지 잡아 동네잔치 베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새록새록해.

(면담, 2019년 11월 22일)

다. 중년기=기쁨과 즐거움 哀, 樂

아버지 : 고등학교 졸업 후 경기도 고양군 농협에 첫 출근했던 그 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울먹임). 삼양동에서 거기까지 출근하기란 너무나 멀었던 그때, 어쩌다 현금 시재 10원이 안 맞아 그걸 찾느라 퇴근을 못 하고 있을라치면, 그깟 10원 주고 빨리 퇴근하지 뭐하냐고 전화 주셨던 엄마가 정말 보고 싶다(울먹임).

(면담, 2019년 11월 22일)

라. 노년기= 病, 死

아버지 : 신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 노, 각종 희, 노, 애, 락의 행복을 주셨다면 병사를 주는 것인가...열심히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던 나에게

도 평생, 늙지 않을 것 같은,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울먹임)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젠 순응하며 현실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건강을 다시 주시라고.

내가 별씨 이런 나이가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늙고 병들게 되어있구나! 만감이 교차를 하는 거지...내가 이런 거라도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지...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지만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고...(울먹임, 기침)신은 왜 인간에게 행복만 주시지 불행을 주셨을까 원망스럽기도 하고....병들게 하셨다면 병도 낫게 해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닌가...

(면담, 2019년 11월 22일)

9.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버지는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주었으면 하는 유산으로 정신적인 것과 신앙, 물질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첫 번째 정신적인 유산으로 자녀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인간이 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신앙으로 아버지는 '신 앞에 가려고 할 때 부끄럼 없고 거리낄 것 없는 뜻뜻하고 당당한 그런 당신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물질적인 것으로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더욱 풍족하게 많은 것을 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여기며 남겨줄 유산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더욱 건강을 되찾아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아버지 : 첫 번째, 정신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목이 메임, 침묵)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인간이 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울먹임), 늘 인생에 행복을 맘껏

누리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울먹임).

두 번째는 신앙인데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부족함 없이 올바르게 성장해 준 것 같아서 고마워. 이 모습 그대로 당신 곁에 가려할 때 부끄럼 없고 거리낄 것 없는 뜻뜻하고 당당한 그런 당신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세 번째는 물적인 것으로 해 주고 싶은 것 다 해 주지 못해 평생(울먹임) 한이 되어 버린 그것, 그것을 물려주지 못해 죽지도 못할 것 같은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꿈꾸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그려기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을 주십시오, 오늘도 죽을 각오로 버티며 기도를 드린다.

(면담, 2019년 11월 22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였다.

첫째,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시간의 개념은 크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아이온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이온의 시간은 개인을 특정한 형식에 붙들어 매고 양적으로 측정하려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나누는 유동적인 선분이 시간이다(Deleuze, 1969, 이정우 역, 2007). 김영천, 한광웅(2012)에 의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초한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탐색하는데 이런 생애사연구의 주안점은 참여자가 살아온 삶과 삶이 자리 잡은 맥락의 사실성 탐구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이러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되어 인식되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삶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자신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향으로의 회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둘째, 아버지는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털어나고 자란 고향, 학교, 직장 등의 공간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는데 삶의 경험은 시간, 공간, 그리고 상호작용의 세 차원에서 삶의 이야기로 구조화된다고 한 Goodson과 Sikes (2001)의 의견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논밭, 할머니의 집안일을 돋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설거지를 했던 재래식 부엌, 첫째 딸과 자주 놀러 갔던 테니스장, 첫째 딸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던 캠퍼스, 막내아들이 군에 입대했을 때 면회를 갔던 군부대, 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첫째 딸과 둘째 딸과 함께 탔던 택시 등의 장소들을 의미있는 장소로 언급하며 생애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셋째, 아버지는 딸과 함께 이루어진 생애이야기 대화에서 자신의 삶을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고 연구 초반에는 이야기하였으나 면담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인생이야기가 연구자인 딸과 가족들에게 ‘보람있는’

IV. 결론 및 논의

2019년 11월 22일 이후 4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항암 치료도 중단되었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를 보내 드릴 것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4차 면담에서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던 몇 개의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주고 2020년 2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 항암 치료 중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아버지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걸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생애이야기를 통해 한 남자로서의 생애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9년 7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4학기에 재학중이던 장녀인 연구자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애이야기를 통해 탐구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야기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호기심과 놀라움, 의아함을 가지고 연구에 성실하고

인생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삶 전체를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자신의 실수나 잘못 등을 반성하며 ‘덜 욕심부리고 양보했으면 됐을 것을, 다 부질 없는 짓이었다’라며 삶을 회고하였다. 김정이, 소향숙(2019)의 연구에 참여한 잔여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암 환자 A도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용서받을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였다. 또한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병이 완쾌되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넷째, 아버지의 생애이야기 체험은 아버지의 지나온 삶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투병 중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슬퍼하면서도 가족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인식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가족 및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다. 홍정민과 최선남(2020)의 아버지와의 진정한 만남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정을 주제로 탐구하였는데 자전적 탐구와 함께 아버지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밭에서 함께 일하기도 하고 종교생활에 동행하며 일상을 관찰하고, 심층 면담과 인공물 수집, 대화적 관계맺음, 미술작업을 통한 다면적인 관찰과 소통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고 ‘대화적 관계 맺음으로 가족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이, 소향숙(2019)에 참여한 말기암 환자 참여자4와 6도 생의 마감에 직면하여 긍정적 사고로 전환되어 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한다고 하였고 ‘죽음 앞에서 용서 못 할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잘못했던 가족들에게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남은 시간을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으로 인식하며 신앙에 의지하며 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인생관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유산으로 정신적 유산, 신앙, 물질적 유산을 이야기하였다. 첫 번째 정신적인 유산으로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했고 두 번째는 신앙으로

신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세 번째 물질적인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고 갈 것이 없는 현재의 상태와 자신의 처지를 미안하다고 하였다.

Atkinson(2011)은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박세원, 김영순, 2016; 재인용). 아버지의 생애이야기는 한 남자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삶을 의미 있게 되살리는 작업으로 연구자인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는 이제 내 곁에 없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는 내게 큰 유산으로 남아 내 삶 속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에 관해 너무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 로버트 허홀드 -

참고문헌

- 곽수영, 이병숙 (2013).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수용 경험: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3(6), 781-790.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정이, 소향숙 (2019). 말기 암 환자의 희망체험: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 적용. *종양간호연구*, 19(2), 55-70.
- 박세원, 김영순 (2016). 노년여성의 생애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생애이야기 대화의 노인학적 가치.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32(2), 17-41.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201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한경혜 (2004). 노년학 연구의 방법론: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4(4), 87-106.
- 홍정민, 최선남 (2020). 아버지와의 진정한 만남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가족관계 회복의 여정-. *미술치료연구*, 27(2), 237-257.
- Cole, A. L., & Knowles, J. G. (2001). *Lives in Context: The Art of Life History Research*. Walnut Creek, CA:

- AltaMira Press.
- Deleuze, G. (1969).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2007).
의미의 논리. 서울: 한길.
- Goodson, I. F. (1988). *The making of curriculum: Collected Essays* (second ed.). London, New York, & Philadelphia: Falmer Press.
- Goodson, I. F., & Sikes, P. (2001). *Life History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Learning from lives*. Open university.
- Hatch, J. A. (1995). "Life history of a first grade teacher: a narrative culturally sensitive teaching practice" in *Qualitative Research in Early Childhood Settings*. Praeger Publishers, 64.
- Petra, M. (1998). *Subject to Fiction: Women Teachers' Life History Narrative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Resistance*. Open University.
-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박순용 역 (2017).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서울: 학지사.

ABSTRACT

A life history study on the life of a father battling cancer: Focusing on interviews conducted during the battle against lung cancer

Kim, rang¹, MOON, Hyuk-Jun²

¹Student, Catholic University, ²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how the father, who is battling cancer, perceives his life through his life story.

Methods Inquiry was studied through life history research,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educational phenomena are created through the life stories of participants. Life history research is a useful research method to understand how the specific choices and behaviors of the elderly in the past life process are reflected in the current quality of life and interpretation of life. I wanted to explore how to find the meaning of the rest of my life.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until the health of the study participants was allowed based on open and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their fathers, in-depth interviews, audio recordings, auto-biographical journals, photos, and conversations through SNS.

Results Through the life story, the story was told in chronological order from childhood to old age, and it is classified into 9 themes as follows. 1) memories of mother and father, 2) school days and the beginning of social life, 3) marriage and childbirth, 4) difficult or sad moments raising children, 5) rewarding moments raising children, 6) children Difficulties raising a child, 7) Thinking about the father's role, 8) Looking back on the whole life: If children/adolescence, middle age, and old age are expressed in a metaphorical way, 9) What do you think is the legacy that parents would like to pass on to their children?

Conclusions In the interview, the father looked back on his life throughout childhood, adolescence, adolescence, middle age, and old age and talked about his experiences as a father while raising children. Through the life story, I was able to fully feel the life of a man and the life of a father in a family.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life history, father's life, terminal lung cancer patient